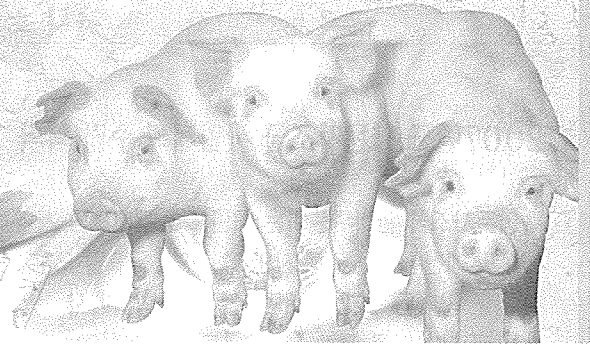


축산정보



돼지콜레라, '돼지열병'으로 명칭 변경

가축전염병 분류 세분화 등 양돈협 건의사항 반영

그동안 대한양돈협회가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주장 해왔던 가축전염병 분류의 세분화 등이 반영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됐다. 농림부는 지난 9월 9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가축전염병 분류를 '제1종·제2종'에서 '제1종·제2종·제3종'으로 세분화하고, '돼지콜레라' 명칭을 '돼지열병'으로 변경했다.

농림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면서도 사람의 질병과 명칭이 비슷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일부 가축질병의 명칭을 변경하고, 농가 자율방역을 유도하기 위해 법정가축전염병중 제2종 일부를 제3종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 자문을 위해 농림부장관 소속기관 소속하에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두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지방가축방역협의회 두도록 했다. 또 가축의 살처분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살처분'을 '강제폐기'로 명칭을 변경했다.

가축전염병예찰 실시요령 개정고시

농림부는 지난 9월 9일 가축전염병예찰실시요령을 개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가축전염병 발생정보 발령은 가축전염병의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원장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가축전염병 예찰결과를 종합 분석해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신

종·재출현 가축전염병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림부장관이 대통령령 제124호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라 작성된 가축질병 위기대응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농대위 한·미 FTA 저지 기자회견



한미 FTA 농축수산물비상대책위원회(농대위)는 지난 9월 5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 저지 입장을 공고히 했다. 한편 농대위는 전국 140여개시군에서 모두 15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시다발적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국제간 돼지 게놈프로젝트 본격 참여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는 돼지 게놈프로젝트 국제 컨소시엄('06. 2월 추진) 공식 소식지인 Pig Tales 창간호('06. 7)에 축산연구소에서 제공한 32만개 이상의 해독자료 성과를 발표했다.

돼지 게놈프로젝트는 2년간('06~'07) 총 3,000만 불이 투입될 계획으로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 5개국이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되

어 있다.

이번 돼지 계농프로젝트 참여는 축산분야에서는 국내 처음의 가축유전체 국제컨소시엄으로, 돼지 생산 및 질병저항성 관련 유전자를 발굴해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은 물론 소비자 맞춤형 돼지고기 생산이 가능하도록 기반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춘진 의원, 축사 등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법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지난 8월 22일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춘진 의원은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이 교통유발, 인구집중 등 문제해결을 위한 기반시설을 요하지 않음을 감안할 때, 축사 등 건축물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반시설부담 부과 제외 대상에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 개정법안은 대표발의자인 김춘진 의원을 포함 강기정·윤호중·김선미·송영길·유승희·김태홍·양승조·안명옥·이원영·김영주·신중식·구노회·이광철 의원 등이 발의했다.

미국산 쇠고기 추석전후 국내 수입 미산 쇠고기 수출작업장 36개소 최종 승인

농림부는 지난 9월 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다고 확정 발표했다. 따라서 추석 전후로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올 전망이다.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대한 2차 현지점검을 마치고 지난 9월 7일 전문가 의견을 들었으며, 해당 작업장의 위생 및 광우병 안전관리가 한미 간에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부합되는 36개소를 최종 승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작업장 승인이 이뤄지면 “도축월령 30개월 미만의 뼈를 제거한 살코기”만 수입이 허용되며, 과거에 수입

됐던 뼈있는 갈비와 횡경막(안창살), 각종 부산물(혀, 내장 등), 소시지 등 가공육, 분쇄육은 수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갈비뼈와 꼬리뼈 등 국제기준상 교역이 제한되는 SRM(특정위험물질 : 뇌·척수·머리뼈·등뼈·편도 등)에 해당되지 않지만 뼈 속에 들어있는 골수에 광우병 원인체가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수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미 쇠고기 수입재개 승인 철회를”

축산단체 반대 성명 연이어



농림부가 지난 9월 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방침을 확정 발표하자 축산단체를 비롯해 소비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반대 성명을 쏟아냈다.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수입재개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우병 의심 쇠고기 수입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식품안전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한미FTA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체계가 불가능한데다 아직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에도 수입을 재개키로 한 것은 심각한 국민의 안전성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미국 현지에서의 상시 검역제도가 없음도 문제가 있는 만큼 미국산 쇠

고기 수입 재개는 해서는 안 됨을 거듭 촉구했다.

한·미 FTA 3차 협상, “원산지” 표시 문제 이견

육류 원산지 표시를 둘러싸고 한·미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9월 6일~9일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한·미 FTA 제3차 협상에서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12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농림부는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 미국은 도축국을 기준으로 하자”는 입장을 보였다며 양국간 이견이 대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통일원산지 기준에서는 도축국 기준이 대세”라며 향후 육류 원산지 표시가 도축국 기준이 될 가능성을 암시했다.

농림부 배종하 국제농업국장장은 이날 브리핑 이후 일문일답에서 농업분야 원산지와 관련 “기본적으로 신선농산물의 원산지는 생산을 기준으로, 가공농산물은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데 접근했지만 축산물 원산지의 경우는 입장이 대립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 국장은 농축산물 관세양허안에 대해서 미국 측과 의견 차이가 크다며 앞으로 우리 측 양허안을 수정하려면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가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종돈장 검사대상 전염병에 ‘PRRS·돼지부루세라’ 추가확정

종돈장 검사대상 가축전염병에 PRRS(돼지생식기 호흡기증후군)과 돼지부루세라병이 추가됐다.

농림부가 종돈장 검사대상에 이들 전염병을 추가한 종돈장방역관리요령을 확정, 지난 14일 개정 고시함에 따라 앞으로 종돈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는 정기적으로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부루세라병, PRRS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검사비용은 올해 종돈장 부담액 30%를 시작으로 매년 10%씩 증액하여 2013년부터는 100% 종돈장이 부담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종돈장방역관리요령은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 한-일 방침 차이 뚜렷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결국 재개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업계의 반응이 석연찮다.

특히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내용과 비교해볼 때 그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우리의 쇠고기 수입 기준이 더 강화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례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입 쇠고기 조건을 살펴보면, 우리는 30개월 미만 살코기를 수입하는 반면 일본은 20개월 이하만 수입한다. 지금까지 20개월 이하는 광우병이 발견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그만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수입위생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위반한 작업장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하는 것으로 정해 우리나라가 안전성에 대한 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가치의 최우선 목표 ‘고품질, 안전성’ 동물자원과학회, 축산물 안전성 국제심포지엄 개최

축산물 브랜드에 대한 가치 중심이 품질은 기본이고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2006년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의 부대행사로 지난 7일 COEX 아셈홀에서 동물자원과학회(회장 백인기)와 축산물브랜드경영체협의회(회장 진길부) 공동 주관으로 열린 ‘축산물 안전성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축산업계 산학관련 관계자들은 브랜드의 최대 경쟁력은 품질 자신감에 기초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생산이었는데 공통된 인식을 보였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일본 군마미트의 기무가와 가스로 기술고문은 ‘일본의 식육안전성 관리제도과 운영’ 발표를 통해 “수입쇠고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이력제와 BSE 전두검사, 화우의 DNA샘플 수거 및 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 곡물가격 '급등세'

대체연료인 에탄올 생산 곡물가격 상승 부추겨

올해 국제 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 하는 등 높은 유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곡물가격도 덩달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유가 상승에 따라 선진농업국의 곡물 생산비용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곡물 교역시 해상운임의 상승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곡물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브라질, 미국 등을 중심으로 최근 곡물을 이용한 에탄올 생산 등 대체연료의 개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은 곡물 수입국들은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미국 농무성의 세계 옥수수 수급현황에 따르면 '06/'07년도 세계 옥수수 수급 상황은 옥수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할 전망인데 비해 생산량은 오히려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할 전망이며, 곡물 재고수준은 23년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할 전망으로 향후 곡물 확보를 둘러싸고 상당한 어려움이 닥쳐올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료용 소맥공급이 감소되면서 옥수수 수입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향후 추이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06/'07년 세계 옥수수 수출시장은 미국이 70%, 아르헨티나 14%, 중국 5%, 기타 국가들 11%로 미국의 수출시장 지배력은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최근 들어 유가상승으로 인해 자국내 에탄올 생산을 위한 옥수수 사용량은 2005년의 경우 미국내 옥수수의 국내 사용량인 228.2백만톤의 15.9%인 36백만톤으로 추정되며, 2006년에는 54백만톤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료용 곡물 수급은 상당한 불안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료협회 김치영 부장은 "미국내 옥수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옥수수 가격은 강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재 중국과 미국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료용 옥수수의 수입선을 남미 및 동남아로 다변화시켜 불안정한 수급상황에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김 부장은 "새로운 대체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옥수수의 에탄올 부산물인 DDGS(Distiller's Dried Grains with Solubles)에 대해 보다 높은 관심을 갖고 향후 경제적인 구매를 위한 물량 확보 등에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덴마크 육류산업의 위생 및 식품안전'을 발표한 덴마크 육류연구소 스티버그 박사는 세계적인 돈육 수출국인 덴마크가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항생제 잔류량 최소화와 살모넬라 감시프로그램 등의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광역 공동 브랜드 규모화 보다 촉진되어야”

축산물 브랜드는 앞으로도 광역 또는 공동사업을 통한 규모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브랜드 전시회 부대행사로 지난 8일 COEX 아셈홀

에서 열린 '브랜드 축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유통업체 바이어 초청 간담회'에서 앞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소규모 브랜드에 대해 광역, 공동사업을 통해 규모화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이어들은 또 브랜드 경영체를 꾸준히 이끌어 나갈 리더가 우리나라 축산물 브랜드사업에 꼭 필요하고 강조했다.

롯데마트 이권재 과장은 "돈육의 경우 지금도 여러 브랜드를 시험적으로 취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일부 인증브랜드의 경우 너무 지나친 자신감을 갖는 모습을 보면서 바이어들은 품질, 안전성 관리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농협유통 백계봉 과장은 바이어들이 구매시 중점으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 “한우의 경우 품질인증, 사양 관리 기록 및 표준화이며 돼지는 인지도, 품질 균일성, 위생안전 생산체계 구축여부, 안정적 출하물량 확보여부, 가격 메리트 등”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윤기호 농림부 축산물위생과장은 “정부의 정책목표는 세계 일류의 농축산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품질, 위생분야에서 OECD기준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과장은 또 “경영체와 유통업체가 화합과 상생으로 윈-윈하기 바란다”며 “브랜드 경영체들이 공통 관심사항을 공유하면서 유통 활로를 고민하자”고 당부했다.

돈육 재고량 2개월째 오르막

돼지고기 재고량이 2개월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서 발표한 7월 돼지고기 조사재고량은 총 3천745톤으로 전월대비 2.4% 증가했다. 이는 지난 6월 돼지고기 재고량이 전월대비 5.4% 증가한데 이어 다시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등심과 전지 부위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등심은 조사재고량이 545톤으로 전월대비 6.9% 증가했으며, 전지는 541톤을 기록해 전월대비 19.8% 큰 폭 증가했다. 또한 목등심과 갈비는 각각 211톤, 610톤으로 전월대비 6.5%, 13.7% 증가했다.

한편 삼겹살은 큰 폭으로 감소, 재고량이 17.9% 감소한 567톤을 기록했으며, 안심은 65톤으로 4.5% 감소, 후지는 944톤으로 0.7% 각각 감소했다.

양돈사료 생산량 소폭 감소

양돈사료 생산량이 소폭 감소했다.

7월 양돈사료 생산량은 41만647톤을 기록해 전월 41만3천817톤대비 0.8% 감소했으며, 1~7월까지 생산량은 289만1천225톤을 기록, 전년동기 290만4천908톤대비 0.5% 감소했다.

이 가운데 젓똥돼지용과 육성돈전기, 비육돈, 포유 돼지용은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젓똥돼지는 11만3천

23톤으로 전월대비 2.2% 증가했으며 육성돈전기는 11만2천299톤, 비육돈은 5천773톤, 포유돼지 3만6천775톤으로 각각 전월대비 1.7%, 3.2%, 0.1% 증가했다.

한편 젓먹이돼지는 2만2천327톤을 기록해 전월대비 9.6% 대폭 줄었으며, 육성돈후기는 6만1천591톤으로 3.6% 감소했다. 또한 비육돈출하는 7천416톤, 번식용수돼지 574톤, 번식용암돼지 1천137톤, 임신돼지 4만9천732톤으로 나타나 전월대비 각각 7.2%, 37.6%, 15.0%, 3.8% 크게 감소했다.

도축두수 '감소세' - 6년5개월만에 '최저'

올해 7월 돼지 도축두수가 6년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농림부가 발표한 7월 도축두수에 따르면 돼지는 총 91만2천35두로 지난 2000년 2월 90만8천188두 이래 최저치를 보였다. 또 전월 96만5천178두보다 5.5% 감소하고 전년대비 7.0% 감소했다.

성별로는 암돼지가 46만3천85두로 전월·전년대비 6%씩 감소했으며, 수돼지는 44만8천950두로 전월대비 5%, 전년대비 7.9% 각각 감소했다. 또 7월까지 총 도축두수는 727만5천347두로 집계돼 지난해 누계 물량보다 4.9%나 감소했다. 한편 돼지 생체중은 평균 106kg을 보여 지난해 평균보다 낮아졌다.

돼지열병 항체검출용 키트 개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수의과학기술개발연구사업을 통해 유전형에 관계없이 돼지열병 항체를 검출할 수 있고,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 재조합 마커백신의 사용 시 야외감염에 의한 항체를 신속하게 감별할 수 있는 ELISA 진단키트를 (주)제조바이오텍과 공동으로 개발을 완료했다.

이번에 개발한 돼지열병 Erms ELISA 키트는 돼지열병 백신주 및 야외주 감별진단 뿐만 아니라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모든 유전형에 관계없이 진단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역원은 향후 마커백신과 더불어 이번에 개발된 키트를 사용함으로써 돼지열병 근절사업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ED 발생 을 들어 최저치

돼지 유행성설사병(PED) 발생이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농림부가 발표한 가축전염병발생월보에 따르면 PED는 7월에 1건, 50두에 발생해 지난달 총 5건, 2천 130두에 발생한 것 보다 43배 가까이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7월까지 집계된 PED 발생두수는 6천818두로 전년동기누계 2천761두 대비 약 2.5배 증가했다.

돼지 오제스키병(AD)은 7월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7월까지 총 1천605두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증가했다.

‘동물의약연구회’ 추계 심포지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지난 9월 15일 검역원 대강당에서 동물의약연구회 주최 “동물용 항생제 내성과 안전사용 관리” 추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항생제 내성과 국·내외 내성 발생동향(서울대 김소현 박사), 동물 및 축산물 유래 항생제 내성(검역원 정석찬 과장), 사료첨가용 항생물질의 위해평가 및 위해관리(Dr. Shryock, Elanco, 미국) 및 동물용 항생제의 안전사용 관리 방안(검역원 손성완 과장) 등 4개 연제가 발표됐다.

농지 내 지정 축산지구 조성안 제시

지난 8월 3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권오을) 주최로 열린 “농업·농촌의 활로모색을 위한 농정 대토론회”에서 국토연구원 최혁재 연구위원이 “취락과 떨어져 있으면서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지역을 축산지구로 지정해, 그 안에서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축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축사 및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은 농업용 시설로 분류해 이를 허용하는 용도구분 안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농지전용을 받도록 하되 농지훼손

농림부 차관보에 김달중씨



농림부 김달중 차관

농림부 신임 차관보에 김달중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임명됐다.

김달중 신임 차관보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중앙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1회로 공직에 입문했으

며, 축산물유통과장, 축산정책과장, 기획예산담당관, 축산국장 등을 두루 거쳤다.

한편 정책홍보관리실장에는 정학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임명되고, 농업구조정책국장에는 박현출 축산국장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는 정승 농업구조정책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 적은 시설에 대해서는 전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전용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연구원은 경종농업과 축산농업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최 연구원의 의견에는 공감했으나 축산지구 단위 설정은 질병이나 냄새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강원대 성경일 교수는 농지에 축산이 들어감으로써 경종농가의 소득 감소를 메울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농지로도 보존할 수 있게 된다면 농지에서의 축산 활동은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2차 아시아·태평양 축산학회 ‘개막’

제12차 아시아·태평양 축산학회가 9월 18일~22일 부산 BEXCO에서 ‘인류복지를 위한 축산업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한국축산분야학회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동물자원과학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국내외 총 1,3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행사와 견학 등 기타행사로 진행됐으며, 우리나라 축산 및 근대농업의 역사를 아세아·태평양 지역 및 세계에 널리 알린 중요 행사로 축산업계 관계자들의 환영을 받았다.